



민고 듣는 현악4중주 '노부스 콰르텟' 광주 공연

2007년 결성...모차르트 콩쿠르 우승 등 국내외 활동
26일 금호아트홀서 드보르작 '아메리카' 등 연주

한국을 대표하는 현악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이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이 날 공연에서는 레스피기의 '도리아선법의 사중주 작품 144', 드보르작의 '현악사중주 12번 바장조 작품 96 아메리카', 멘델스존 '현악사중주 6번 바단조 작품 80'을 선보인다.

노부스 콰르텟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솔리스트 연주자들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과 김영욱, 비올리스트 김규현, 첼리스트 문웅휘로 구성됐다. 2007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연주자들이 실내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결성했으며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의 구분없이 팀을 운영하고 있다.

결성 직후 오사카 국제 실내악 콩쿠르를 비롯해 서울 국제 실내악 콩쿠르, 하이든 국제 실내악 콩쿠르 등 저명한 실내악 콩쿠르에서 순위입상했다. 2012년 세계 최고 권위의 뮌헨 ARD콩쿠르에서 2위를 수상하고 2014년 한국 현악사중주단으로는 최초로 제11회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2015년 제9회 대원음악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한 노부스 콰르텟은 2016년 제2회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음악분야 실내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속적인 정기 연주회를 열어 국내 관객들을 만



노부스 콰르텟의 멤버 비올리스트 김규현(왼쪽부터),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 김영욱, 첼리스트 문웅휘.

나고 있는 노부스 콰르텟은 한국 최초로 바흐의 '푸가의 기법' 전곡을 연주하는 등 실험적이고 의미 있는 작품들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노부스 콰르텟은 한국인 아티스트 최초로 하겐과

르텟, 벨체아콰르텟, 아르테미스콰르텟 등이 소속돼있는 현악사중주 매니지먼트 에이전시 지멘아우어 소속 연주자다. 전석 5만 원, (학생 1만 원 할인) 문의 062-360-8437. /전문기자 ej6621@



'패터슨' 앙코르
광주극장서
또 만나요

영화 '패터슨'이 전전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영화는 8주간 흥행하며 최근까지 6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

지난 1월 '패터슨'을 상영했던 광주극장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패터슨'을 앙코르 상영한다.

'천국보다 낫선', '데드 맨', '커피와 담배'의 집 자무쉬가 메가폰을 잡은 영화 '패터슨'은 미국 소도시에서 사는 버스 운전사의 잔잔한 일상을 통해 특별한 울림을 전하는 영화로 2016년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해 호평받았다.

특히 '패터슨'은 시인 등 문단 관계자들의 찬사가

이저고 10여차례 관람하는 이도 등장하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다.

미국 뉴저지 주의 소도시 '패터슨'에 사는 버스 운전사의 이름은 '패터슨'이다. 매일 비슷한 일상을 보내는 패터슨은 일을 마치면 아내와 저녁을 먹고 애완견 산책 겸 동네 바에 들러 맥주 한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리고 일상의 기록들을 틈틈이 비밀 노트에 시로 써내려 간다.

시간표는 홈페이지(cafe.naver.com/cinemagwangju)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완도 보길도·고흥 외나로도 당산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민속행사 지원

완도 보길도 예송리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40호)은 약 300년 전 태풍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만든 숲이다.

마을과 농경지를 보호하는 방풍림 기능은 물론, 물고기가 서식하기에 알맞은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정월 초하루 상록수림 앞에서 풍어와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당제를 올린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을 비롯해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과 명승 69곳에서 올해 열리는 민속행사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연유산 민속행사는 오는 15일 개최되는 완도 예송리 당산제와 고흥 외나로도 상록수림 당산제를 비롯해 11월까지 전국 일원에서 개최된다.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르네상스탐사단'이 찾은 남도 콘텐츠

전남문화관광재단 '남도문예 르네상스를 여행하다' 발간



남도는 천혜의 생태자원과 인문 자원, 맛깔스러운 음식, 2000여 개가 넘는 아름다운 섬, 드넓은 갯벌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간직한 고장이다. 이 같은 자연자원과

전통 문화예술자원은 21세기 남도문예르네상스를 구현할 소중한 자산이다.

남도문예르네상스 관련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가 발간돼 눈길을 끈다.

전남문화관광재단(문화관광재단)은 남도문예 르네상스 콘텐츠 관광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남도문예 르네상스를 여행하다'(사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은 문화관광재단의 '르네상스탐사단'이 남도문예 르네상스 유·무형의 12가지 콘텐츠

중 4가지(음식문화, 종가문화, 서화, 전통정원)에 대한 자료를 발굴한 결과물이다. 르네상스 탐사단에는 여행작가, 파워블로거, 1인미디어 작가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책은 모두 6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는 이대흠 시인이 추천하는 여행지로, '윤림산방', '동백정' 등이 소개돼 있다. 2부는 여행작가 이수현이 추천하는 공간이다. 안좌면 김항이 생가, 강진 해주 최씨 종가 탐방 등이 담겨 있다. 3부와 4부는 각각 여행블로거 최경자·강경원과 송해주가 추천하는 목포, 신안, 담양, 영암, 구례 등 주요 유적지에 관한 내용이다.

5부는 영상소통가 임용철이 천년고도 나주, 학교 양평순과 정암 조광조가 나누었던 지란지교의 공간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6부는 '전남의 알뜰산업' 전문선이 남도의 종가 등을 소개한다.

각각의 콘텐츠에는 맛깔스러운 글과 함께 생생한 현장 사진이 수록돼 있어 보는 맛도 쏠쏠하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서 뽐내는 아시아 23개국 전통의상 매력



'ACC 아시아 패션쇼' 사회를 맡은 에릭남(왼쪽)과 행사 포스터.

22일 'ACC 아시아 패션쇼' 개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O)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ACC 아시아 패션쇼'를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각국의 아름다운 의상을 널리 알리고 화합의 의미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패션쇼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서포터즈이자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UAE 등 아시

아 23개국을 대표하는 톱모델이 자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화려한 쇼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쇼에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최근 방영된 인기 드라마 OST를 부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수 에릭남이 MC를 맡고 축하 공연도 진행한다. 패션쇼 후에는 포토 타임 행사도 진행한다.

전석 2만원. 자세한 공연정보 및 예매는 ACC 홈페이지(www.acc.go.kr), 콜센터 (1899-5566)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속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 아모리이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 아모리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 아실리 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 비비드 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대표전화 1588-2219